

# 대승보살 願으로 불자 자부심 세워

## 전북불교회관 중창 봉사 전북지역 불교 중심 기대

전북지역의 전법포교도량인 전북 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일원)는 삼존 불 개금과 관세음보살 입상 점안식 및 회향법회를 9월 18일 4층 큰법당에서 개최했다.

점안식 및 회향법회에는 금산사 회주 태공 월주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 석두 스님 신행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백호 전북불교 신도회장, 하우호 보현사 일요법회 회장, 이동호 원각회장, 김수영 금산중고교 교장, 차경사 바라밀 합장단장을 비롯한 각급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증명법사인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사 중 가장 성스러운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한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한 동참대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32상 80종호의 지혜와 위신력으로 우리에게 나투신 부처님처럼 대승보살의 염원으로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보사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 성스러운 불사에 환희 찬탄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며 모두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자고 설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격려사에서 “전북불교회관이 포교사를 배출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불교대학의 발전과 포교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개금불사와 관세음보살 봉안불사에 동참해준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일원 스님은 “석가모니부처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개금불사를 원만 회향하게돼 사부대중여러분과 함께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이 보현사 삼존 개금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 보현사가 전북지역 불자들이 편안 한 마음으로 항상 찾아 공부하고 기도하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사부대중들은 해외구호 NGO 단체인 지구촌공생회에 일금 10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전남 포교활성화 책임질 것”

## 조계종 21교구 신도회 출범

광주전남지역 신도조직화와 포교활성화를 목표로 조계종 21교구 송광사 신도회가 발족했다.

순천 송광사는 9월 18일 송광사 사자부에서 조계종 21교구 신도회 발족식을 갖고 지역 포교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21교구 신도회는 증심사, 무각사 등 17개의 지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에 지용현 신임회장을 임명했다.

행사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조계종 총무원 포교국장 남전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의 말사사찰 주지 스님들과 신도 200여명이 참여했다.

영조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구신도회의 창립은 송광사의 긴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신도와 스님들이 모두 주인공이 되어, 신도회의 활성화에 능동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이 지용현 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적으로 활동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신도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광주전남지역 포교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용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송광사는 고려 말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기울어가는 불교를 바로세

우고자 정혜결사 깃발을 세운 승보종찰이다”라며, “이제 또다시 천년이 흐른 오늘 재가불자들이 모여 새로운 천년을 향해 한국불교의 당간을 세우자”고 말했다.

한편 신도회는 이날 창단식 후 신도회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홍문숙 관장에게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 안전모 벗고 주민 위한 구슬땀

현대건설 엑스포타운 건설 현장의 임직원 20여명은 9월 19일 문수 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진옥, 관장 홍문숙)을 찾아 독거어르신과 장애가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무료 경로식당과 독거어르신, 장애인세대를 위한 쌀 20kg 20포대를 홍문숙 관장에게 전달한 뒤 5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8팀으로 나뉘어 몸이 불편해 청소조차 힘들었던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가정에 방청소, 전기수리 등의 정결활동을 진행했고,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말벗서비스, 지역주민 무료 자비목욕탕 청소 등 문수복지관 시설 내 청소를 진행했다. 또한, 문수

주공아파트 단지과 문수동 일대를 돌며 버려진 생활쓰레기 및 공사잔해물을 수거하는 지역 내 정결활동도 함께 펼쳤다.

특히 평소 많은 지역주민들이 왕래해 지저분했던 복지관 뒷편 벽을 담당직원까지 불러와 직접 페인트칠을 해주는 정성을 보여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장애인세대에 한 대상자는 “너무 만족한다. 불도 만들어 오던 집이 환해졌다”고 말했다.

홍문숙 관장은 “이렇게 오랜 시간 성심성의껏 봉사활동을 해 준 현대건설 엑스포타운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음악도 듣고, 건강도 지키고

### 함평 유모사 숲속산사음악회

함평 유모사에서 숲속 작은 음악 축제인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함평의 황칠나무로 유명한 유모사(주지 보각)에서 6년간의 불사를 마무리하는 산사음악회를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유모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오후 2시 영산제 시연과 국악, 함평나르다예술단의 식전행사에 이어 광장음악회의 성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수연 강사의 살풀이춤 시연, 원광대학교 김금희 교수의 판소리와 판소리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황칠술, 편백 숲 치유체험과 황칠차 시음회 및 저녁 공연이 진행돼 건강과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를 준비한 한다.

한편 이날 중장개원하는 유모사는 호남지역 대표적 특산물로 인기를 누리다 사양길로 접어든 전통 함죽선에 칠하는 황칠나무를 제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전 주지 상빈 스님은 20여년 넘게 황칠나무 제배 및 양묘, 이식에만 15년, 황칠채 채취 및 이용 연구에 7년을 매달려 온 끝에 황칠 상용화에 성공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이주성 센터장 박사학위 취득

###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주성 센터장이 ‘이주노동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호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카 이주노동자

를 대상으로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새터민, 다문화가정 佛心으로 보듬는다

### 군산 성흥사·삼보사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와 삼보사(주지 범송)가 다문화가정과 새터민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편안한 쉼터로 거듭난다.

군산경찰서 나유인 서장과 송월 스님, 범송 스님은 9월 21일 군산시 성산면 삼보사에서 새터민과 다문화가정, 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 다문화가정 쉼터 협약식’을 개최

했다. 이날 협약식은 평소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송월 스님과 범송 스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을 체결한 범송 스님은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초청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군산경찰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군산 경찰서는 이 날 협약으로 새



터민과 다문화가정이 종교 활동을 통해 삶의 의욕과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원활한 사회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참 나를 찾는 수행결사 ‘다시 한 번’

### 전북불교대학 야단법석

“무릇 수행하는 모양을 내는데 집착하거나 소리모만 법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는 사람과 같으니,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될 수 없는 바와 같이 앉아서 참선을 한다고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저 회양화상의 말처럼 소가 수레에 매여 있을 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8월초 백양사에서 개최된 바 있는 야단법석이 전북불교대학(학장

한광수)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된다. 10월 2일~11월 27일 매주 일요일마다 총 6회에 걸쳐 ‘참 나를 찾는 수행결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북불교대학 야단법석은 10월 2일 입제식에 이어 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의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의 법석으로 시작된다. 9월 16일 해남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율주)의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 16일 향봉 스님(익산 사자암 주지)의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사’, 23일 현웅 스님(서울 육조사 선원장)의 ‘간화선에 담긴 수행결사’, 30일 시

행결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북불교대학 야단법석은 10월 2일 입제식에 이어 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의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의 법석으로 시작된다.

또 11월 6일 조계종 후원특강으로 진옥 스님(여수 석전사 주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복한 가족’ 특강도 개최된다.

전북불교대학 관계자는 “훌륭한 스승들을 모시고 배우고, 바라보고, 닦아서 참 나를 찾는 전북불교대학 야단법석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63)226-7878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제40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날 기념 봉축 대법회

## 일봉사상강연, 일붕계보(족보) 출판 기념회, 일봉시낭송 등 다채롭게

### 귀의 삼보하옵고

입추지절에서 국내외적으로 계신 1만여 일붕문도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일봉 서경보 존자님의 제자(은,법,조카,손상좌)단체인 공익법인 전국일붕문도중앙회가 어느덧 4개 성상에 도달하여 제4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봉행하는 제40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날 기념 봉축 대법회를 봉행함에 있어 어느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봉사상 강연회, 일봉 시낭송, 일봉 다규기록영화 상영, 일붕계보(족보) 출판기념 등 다채롭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계신 일붕문도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다망 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셔서 일봉존자님의 사상을 기리면서 본회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9월

### 공익법인 전국일붕문도중앙회

명예회장: 무찰, 학암, 지산, 도기  
회장: 의륜 서주범, 대 변 인: 법천  
상임부회장: 용주  
수석공동부회장: 지공, 동봉, 천강, 화엄, 송산  
부 회 장: 만주, 법장, 도천, 영수, 연화, 무애

지회장: 덕산(서울), 삼주(부산), 일웅(대구), 청과(경남)  
향운(전북), 정일(충북), 태봉(충남), 각운(강원)  
대성(제주), 해동(경북), 법천(경기북부),  
대명(경기남부), 보현(비구니회장)

기획위원장: 김소부  
사무총장: 이봉 서병열

### - 다 음 -

- 일시: 불기2555년 10월 10일 양력 (음력 9월 14일 월요일) 오후 1시~
- 장소: 여의도 63빌딩 3층 그랜드볼룸 (국제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전화: (02)789-5803
- 문의전화: (02)355-0093(일붕문도회) (02)777-0901 (02)777-0959(일봉신문사)

### 공익법인 전국일붕문도중앙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